

대학별 무전공 제도 운영 방식

한동대

- 복수전공제도 원칙
- 매 학기 학생 희망 학과를 조사해 강의실, 교수, 예산 등 미리 배정
- 신입생 대상으로 매주 전공 설명회 진행
- 학생의 진로 상담 돕는 ‘아카데미к 어드바이저’ 체계
- 무전공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팀 제도’ 운영

포스텍

- ‘무은재학부 행정팀’ 을 별도로 신설해 효율적인 학사 관리
- RA, SA 두 가지 조교 제도 운영
-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I , 학과탐색, 전공탐색 개별방문활동, 새내기 연구참여 과목 등 다양한 진로탐색 과목 운영
- 한 학기 두 번 이상 지도교수와 진로 상담 진행

이화여대

- 수시모집으로 학과별 입학 인원 보장
- 일부 전형에 대해서만 통합선발로 무전공 선발

대학별 무전공 제도 운영 방식이다.

무전공 제도 안착, 인기 학과의 쏠림 현상 해소가 핵심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무전공 제도 확대-2회

무전공 제도가 안착되기 위한 준비 방향

무전공 제도 도입 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점은 바로 인기 학과로의 학생 쏠림 현상이다. 이는 기초학문 붕괴를 가속화하고 대학 존재 이유를 사라지게 만든다. 이번 호에선 무전공 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인기학과 쏠림 현상 해결 방안과 관련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짚어보려 한다.

인기 학과로의 쏠림 현상에 복수전공제, 크로스리스팅 활성화 대안으로 거론

실제 우리학교 자율전공학부에서는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입학처가 제공한 자율전공학부 전공 선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자율전공학(과)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학생이 몰린 곳은 경영대학이었다. 경영대학 전공(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빅데이터응용학과)을 선택한 학생 비율은 ▲2021년 31.5% ▲2022년 46.2% ▲2023년 37.5% ▲2024년 38.9%였다. 반면 문과대학을 선택한 학생은 최근 4년간 2022년도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듯 특정 전공 쏠림이 우려되며 복수전공제, 크로스리스팅 활성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1996년부터 모든 신입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 온 한동대는 전공 선택 시 복수 전공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동대 기획팀 방청록 기획처장은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 대다수 전공은 복수 전공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80% 이상의 학생이 두 개의 전공을 선택하다 보니 하나는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전공, 하나는 취업을 고려하는 전공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정 전공에 대한 학생 선호가 나타나긴 하지만, 복수전공제로 이 같은 선호가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김중백(사회학) 교수는 무전공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크로스리스팅의 활성화라고 제안했다. 크로스리스팅이란 타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교과목 수강 시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인사 관리, 조직 관리와 같은 과목을 굳이 경영학과가 아니어도 다른 학과에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특정 학과로의 극단적인 쏠림을 막으면서도 학생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공 쏠림 현상이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2018년도부터 ‘무은재학부’를 통해 일부 신입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 온 포항공대(포스텍)는 학생 성향이 해마다 달라지며 비인기 전공도 마니아

층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전공 선택 경향이 다르다고 전했다. 포스텍 기획팀 황병숙 팀장은 “처음 무전공 제도를 도입할 때 쏠림 현상 우려는 굉장히 많았지만 학생의 전공 선택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지만 늘 똑같지 않았다”며 “학생의 관심 분야나 성향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림이 영원하지 않으며 교과목이 붕괴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2018년도부터 국내 주요 대학 최초로 무전공 통합선발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이화여대도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이화여대 기획팀 안윤진 팀장은 “컴퓨터공학, 경영학 등 일부 학과 쏠림 현상이 있기는 하나, 사회수요에 따라 매년 그 비율과 순위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모집을 통해 학과별 입학 인원을 보장하고, 일부 정원에 대해서만 정시모집 통합선발로 선발하기 때문에 기초학문이 붕

“

인기 학과로의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타 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 시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

”



이화여대 전경

(사진=박상희 기자)

괴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동대 방 기획처장 또한 “특정 전공에 대한 학생 선호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니까 그 선호도 함께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학생의 전공 선택 경향도 변화한다고 전했다.

인기 학과로의 쏠림 현상에 따른 강의실, 교수 및 강사 부족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포스텍은 이를 매 학기 학생의 희망 학과 조사를 통해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포스텍 기획팀 황 팀장은 “1학년 1학과와 2학기가 끝난면 학생의 희망 학과를 조사해 학생의 대략적인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며 “이를 각 학과와 공유해 그 학과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에서 학생 수요가 적은 학과에서는 학과 탐색, 전공 탐색 개별 방문 활동, 학과 입문과 같은 수업에서 학과 설명회를 통해 학생이 본인 학과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계속 해서 개선하고 홍보한다”고 덧붙였다.

한동대는 학생의 전공 선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4학기 전공별 소속 학생 수와 전공 선택 증감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기획팀 방 기획처장은 “학생의 전공 선택 직전 4학기의 전공별 학생 수와 증감 추이를 고려해 학생 수가 증가하는 전공에는 교수 TO나 공간,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고 있어 학생이 필요한 만큼의 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지에 맞는 운영 위해서는 세심한 전공 탐색과 학과 적응 돕는 장치 필요

교육부는 무전공 제도의 취지를 “학과 간 벽을 허물고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해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이라고 밝혔다. 해당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학생의 충분한 전공 탐색 기회와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무전공 신입생은 직속 선배와 학과 소속감 부재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포스텍은 이를 위해 무은재학부 행정팀을 별도로 신설해 전체 학생 학사 관리를 하고 있으며 RA와 SA 두 가지 조교 제도를 운영한다. RA는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도움을 주는 조교를 의미하며, SA는 분반별로 지정되는 조교로 학생의 전공 탐색을 돕고 있다.

또한 1-1학기엔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I ▲학과탐색 ▲전공탐색 개별방문활동 과목을, 1-2학기엔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II ▲학과 입문 ▲새내기 연구참여 과목을 필수 이수하도록 한다. 이어 2-1학기에 과학 공학 과목을 이수한 후 최종적으로 소속 전공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포스텍 황 팀장은 “학과 탐색 과목에서는 학과별로 해당 학과에서 연구하고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 진로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탐색이 2학년 1학기까지 계속된다”며 “한 분반 당 지도교수 2명 정도를 배정해, 한 학기에 두 번 이상 학생 면담도 하고 있어 전공 선택 과정의 모든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많은 준비를 통해 학생이 학과 탐색을 충분히 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분야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학생의 충분한 학과 탐색과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장치도 필요해

”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 있다”며 “학교 전체가 융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문화가 잘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공적 운영 위해서는 충직한 지원체계 필요

우리학교는 아직 무전공 제도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획조정처는 양캠퍼스 학무부총장 중심으로 단과대 구성원과의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아직 일부 단과대와의 소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송원섭(경영학 2018) 씨는 “쏠림을 막기 위한 장치와 단과대학별 자율예산 산정 방식의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최예지(Hospitality 경영학 2023) 씨 또한 “무전공 제도의 도입은 신입생이 여러 학문 분야를 경험하며 본인의 진로와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충분한 진로 탐색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전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동대 방 기획처장은 각 학교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 처장은 “각 학교의 특성에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되, 다양한 지원 체계가 촘촘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학생의 학과 소속감 부재 문제, 학업 관리 문제 등 여러 혼란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텍 무은재기념관 모습이다.

(사진=포스텍 대외협력처)